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2017~2018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양재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박사수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ion Facilities for Severe Disabled Products : Focus on the 2017-2018 survey

Jae-Hee Yang

Ph.D. Candidate,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Han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이전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6월 기준 544곳 중 2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증장애근로자는 평균 16.51명이며, 전체 근로자현황에서 2017년보다 2018년에 심사기준상 전체 근로자,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비장애근로자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둘째,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월평균 급여가 2017년 790,977원에서 2018년 829,810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셋째, 생산시설 매출현황에서 지정 전후의 매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정받기 전보다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구매율 향상, 생산시설과 구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역할 명확화,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장애인, 직업재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of severely impaired products for two years from 2017 to 2018,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for the severely disabled comparison with previous study. As of June 2018, 267 out of 544 sites were research and analyzed. As a result, first, the average number of severely disabled workers is 16.51, and the total number of workers, disabled workers who participated in direct production, and non-disabled workers showed the trend of increase in 2018. Second, the average monthly wage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direct production increased slightly from 790,977 won in 2017 to 829,810 won in 2018. Third, Analysis of changes in sales of production facilities before and after designations showed that overall sales of production facilities increased after designations and after designations.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preferential purchase rate improvement and support for production facilities and purchasing public institutions, classification of roles of performance organizations, Clarification of the role of priority purchasing promotion committee for products produced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complementing the minimum wage exclusion system.

**Key Words** : People with disabilities, Vocational rehabilitation, Severe Disabled Products, Production facility, Preferential Purchasing

\*Corresponding Author : Jae-Hee, Yang(blue0093@nate.com)

Received December 26, 2019

Accepted March 20, 2020

Revised March 2,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은 2018년 기준으로 2,586천명이며,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2,495천명이다. 이 중 중증장애인은 787천명이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수는 173천명으로 중증장애인의 22.1%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중 경제활동참여인구수 749천명(43.9%)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1].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일반 경쟁고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재활시설 중심의 보호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시설과 판로,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보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생산시설의 자격 기준을 좀 더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8년 3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입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중 하나이다. 적극적 우대조치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사회적 약자가 받고 있는 정치·경제·교육·고용 등의 영역에서의 구조적 차별과 집단적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2].

미국에서는 AbilityOne 프로그램과 같이 시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대한 고용 잠재력을 개발하고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연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bility 위원회는 대통령 산하에 두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품목의 선정, 조달계약 정부기관 및 비영리기관 지정, 가격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3].

우리나라는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제도화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중 6개 품목을 5~20%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4년에는 17개 품목, 2009년 화훼가 포함되어 18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나, 우선구매특별법 제정 이후 품목과 상관없이 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우선구매특별법 제정 이후 2008년 66개소였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580개 소로 779% 증가했으며, 장애인근로자 역시 1,912명에서 1만 1463명으로 500% 증가하였다[4]. 법 제정 이후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양적 팽창을 보이고 있으며, 시행된 5년이 지난 2015년부터 우선구매율 1.02%, 2016년 1.13%, 2017년 1.01%, 2018년 1.07%로 지속적으로 법적 의무구매율 1%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선구매제도가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나 생산시설에 대한 연구는 나운환[5, 6, 10, 13]과 이해경[7, 8]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박주영[12]이 유일하다. 2015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기초 자료를 통해 생산시설의 기본현황 및 근로자 현황, 매출 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우선구매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2년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근로자현황과 매출현황,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선행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나운환[5]은 우리나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위한 시설과 단체의 역할과 기능정립에 대해 연구하였다. 당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단체의 합리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시설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셋째, 단체의 위상과 조직체계 재확립이 필요하며, 넷째, 현 시설의 유형에 따른 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나운환 외[6]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시설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제도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중앙단체의 설립 제안, 우선구매를 민간기업체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과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혜경[7]은 2011년부터 변화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의무구매자인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하여 구매실태와 구매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변화되는 제도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기관별로 역할을 제시하였다.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는 공공기관별 구매실태와 구매성향을 인지하여 특성에 적합한 제품생산과 품질향상을, 업무수행기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시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구매와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토록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과 함께 우선구매의 강화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혜경 외[8]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실태 파악 및 생산능력 분석, 의무 구매기관의 구매 현황과 구매 욕구 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발전 방안으로 적합품목 개발, 우선구매제도 할당제 도입, 구매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박정남 외[9]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이후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우선구매율의 증가, 생산품목의 확대가 있으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운환[10] 연구에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과로는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활동과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제공이 있었으나, 임금상승의 효과는 없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의 미흡함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원우[11]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케팅 관점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의 강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제반지원 명문화, 각 생산시설 생산품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훈련된 전문 인력의 재능기부 참여를 통한 자체적인 개선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 소비자도 생산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박주영[12]은 2016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선구매 비율 향상, 구매 가산점 확대, 판로 지원 확대, 수익계약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운환 외[13]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생산시설 지정과정과 기준 등 불이행 원인 규명, 사후관리 및 수행기관 역할분담 방안, 일자리 기회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정시설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 문제, 제도 인식 부족, 평가 미반영 등을 불이행 원인으로 규명했으며, 지정과정 및 지정기준 보완, 사후 모니터 체계 개선, 지정시설의 투명성 확보, 업무수행기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제시하면서 직접생산기준을 장애인 중심 직무분석과 배치를 통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동주[14]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 상에서 우선구매제도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와 연계를 강화, 평가 시 평가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난 한국장애인개발원 실태조사[15]에서는 생산시설에서 지정품목 선정 시 수요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적합품목 선정을 위한 방안마련, 꿈드래 시스템 관리 및 홍보 강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3. 연구방법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받은 17개 시도의 544곳(2018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조사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기본정보, 근로자현황 및 매출현황,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와 같은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회수된 조사대상은 267개소(49.1%)로 SPSS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Survey items and details

Survey Items	Details
Basic Information	operation corporation, type, location, item, certification
Employee status	number of workers(person with disabled, non-disabled), type of disability, wage status, working hours,
Revenue status	total sales, revenue by item, sales types

## 4. 연구결과

### 4.1 생산시설 일반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실태와 장애인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운영법인 현황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주로 사회복지법인(47.6%)과 사단법인(46.8%)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재단법인이 1.9%, 기타는 2.2%로 분석되었다(기타 응답은 법정단체 1개, 사회적협동조합 4개, 학교법인 1개).

Table 2. Operation corporation

Items	Frequency	Percentage
Corporation	125	46.8
Foundation	5	1.9
Social Welfare Corporation	127	47.6
Etc.	6	2.2
No answer	4	1.5
Total	267	10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소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운영법인 소유(43.8%), 월세(31.1%), 자치단체 소유(18.4%)가 주요 소유형태로 나타났다. 그 외 전세(4.5%), 기타(0.7%)로 분석되었다.

Table 3. Type of ownership

Items	Frequency	Percentage
Owned by operating corporation	117	43.8
Lump-sum housing lease	12	4.5
Monthly rent	83	31.1
Owned by Local government	49	18.4
Etc.	2	0.7
No answer	4	1.5
Total	267	10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시설 유형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보호작업장(56.9%)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복지단체(26.6%)가 주요 형태로 나타났다. 근로작업장은 15%이며, 재활훈련시설은 1.5%의 분포를 보였다.

Table 4. Facility type

Items	Frequency	Percentage
Sheltered workshop	152	56.9
working workshop	40	15.0

Welfare organization	71	26.6
Rehabilitation training Facilities	4	1.5
Total	267	10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시설 소재지는 경기(25.1%), 서울(18.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경남(7.1%), 인천(5.6%), 경북(5.6%), 대구(5.6%)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Location

Items	Frequency	Percentage
Seoul	49	18.4
Gyeonggi-do	67	25.1
Incheon	15	5.6
Gangwon-do	12	4.5
Gyeongnam	19	7.1
Gyeongbuk	15	5.6
Gwangju	11	4.1
Daegu	15	5.6
Daejeon	3	1.1
Busan	11	4.1
Ulsan	4	1.5
Jeonnam	5	1.9
Jeonbuk	13	4.9
Chungnam	12	4.5
Chungbuk	8	3.0
Jeju	3	1.1
Sejong	5	1.9
Total	267	100.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역특성을 분석할 결과, Table 6과 같이 주로 대도시(47.6%)거나 중소도시(24.7%)로 나타났다. 농어촌 및 산간지역(16.1%), 도농 복합지역(10.9%)에서도 응답이 나타났다.

Table 6. Regional characteristics

Items	Frequency	Percentage
Big city	127	47.6
Small and midium-sized city	66	24.7
Rural	43	16.1
Commercial and agricultural area	29	10.9
No answer	2	0.7
Total	267	10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품목에서 지정품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식품(20.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쇄/광고(16.1%), 시설/설비(15.4%), 생활용품(8.6%), 사무/문구(8.2%), 의류/침구(7.5%), 디지털/가전(6.8%)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품목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Item**

Items	Frequency	Percentage
Furniture	6	2.2
Food	54	20.2
Office supplies	22	8.2
Clothing	20	7.5
Printing	43	16.1
Daily supplies	23	8.6
Discardable after use	15	5.6
Digital/Home appliances	18	6.8
Equipment	41	15.4
Crafts	9	3.4
Flower	5	1.9
Service	9	3.4
No answer	2	0.7
Total	267	100.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품목에서 지정품목별 선정 이유로는 총 267개 사업장에서 7개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2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60개 사업장에서 298개 중복응답을 하였으며, Table 8과 같이 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판매가능성)(40.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해서(25.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7.7%), 시설 설비비용이 적으므로(6.0%), 물량공급이 원활해서(4.4%), 벤치마킹을 통해서(3.4%)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Table 8. Reason for selection**

Items	Frequency	Percentage
Easy to work	11	3.7
In high demand	122	40.9
Less equipment cost	18	6.0
Because supply is smooth	13	4.4
Suitable industry	76	25.5
Regional features	23	7.7
Benchmarking	10	3.4
Market research/ Consulting	6	2.0
Etc.	19	6.4
Total	298	100.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시설 인증현황을 중복응답 분석하였다. 응답한 총 267개 사업장에서 31개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2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36개 사업장에서 325개 중복응답을 하였으며, 별도 인증없음(32.3%) 이외 (예비)사회적기업(21.8%), ISO9001(15.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ISO14001(9.8%), 장애인표준사업장(7.4%), ISO22000(3.4%) 인증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Certification status**

Items	Frequency	Percentage
Social enterprise or Pre-Social enterprise	71	21.8
Disabled standard business establishment	24	7.4
Social cooperative	5	1.5
ISO14001	32	9.8
ISO22000	11	3.4
ISO9001	49	15.1
None	105	32.3
Etc.	28	8.6
Total	325	100.0

## 4.2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 4.2.1 장애유형별 근로장애인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근로자 현황 중 장애인 유형, 중증과 경증의 현황을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중증장애인은 평균 16.51명이며(표준편차: 9.80), 경증장애인은 평균 2.49명이었다(표준편차: 6.45). 이 중에서 지적장애인 중증의 경우는 평균 12.28명(표준편차: 8.6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정신장애인(평균 3.50), 중증 청각장애인(평균: 3.26), 중증 지체장애인(평균: 2.98), 경증 지체장애인(평균: 3.54)이 생산시설에 비교적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의 자세한 현황은 Table 10과 같다.

**Table 10. Status of disabled workers**

Items		Frequency	MIN.	MAX.	Mean	SD
Mental retardation	severe	249	1	58	12.28	8.67
	mild	-	-	-	-	-
Autism	severe	98	1	11	1.97	1.58
	mild	-	-	-	-	-
Mental disorder	severe	105	1	19	3.50	3.71

	mild	-	-	-	-	-
Heart disorder	severe	1	1	1	1.00	.
	mild	1	1	1	1.00	.
Brain lesion	severe	84	1	10	1.73	1.30
	mild	35	1	3	1.29	.57
Epilepsy	severe	8	1	2	1.13	.35
	mild	6	1	1	1.00	.00
Blindness	severe	14	1	3	1.29	.61
	mild	36	1	12	1.72	2.02
Deafness	severe	54	1	15	3.26	3.26
	mild	45	1	15	1.62	2.12
Speech disorder	severe	22	1	2	1.14	.35
	mild	-	-	-	-	-
Respiratory disorder	severe	2	1	1	1.00	.00
	mild	-	-	-	-	-
Kidney disorder	severe	14	1	4	1.36	.84
	mild	7	1	3	1.43	.79
Physical disability	severe	127	1	38	2.98	4.38
	mild	128	1	54	3.54	5.78
Facial disorder	severe	2	1	1	1.00	.00
	mild	2	1	1	1.00	.00
Liver disorder	severe	-	-	-	-	-
	mild	4	1	1	1.00	.00
Ostomy disorder	severe	-	-	-	-	-
	mild	-	-	-	-	-
Total	severe	266	5	71	16.51	9.80
	mild	266	0	88	2.49	6.45

#### 4.2.2 전체 근로자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근로자 현황 중 전체 근로자와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현황을 2017년, 2018년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첫째, 우선 상시근로자의 경우 2017년 25.06명보다 2018년 25.35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둘째, 심사 기준 상 전체 근로자는 2017년 21.47명보다 2018년 21.83명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셋째, 지정품목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2017년보다(남자는 중증이 9.35명, 경증이 2.79명, 여자는 중증이 5.45명, 경증이 2.73명) 2018년에 남자 장애인근로자는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남자는 중증이 9.36명, 경증이 2.79명). 다만, 여자는 2018년에 중증이 5.01명, 경증이 2.59명으로 나타나서 2017년보다 감소추세를 보였다. 넷째, 비장애 근로자의 경우 2017년 4.72명보다 2018년 4.77명으로 나타나서 약간 증가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7년보다 2018년에 상시근로자, 심사 기준 상 전체 근로자,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비장애 근로자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여성 장애인근로자가 감소하였다.

Table 11. Employee status

Items		Frequency	MIN.	MAX.	Mean	SD	
regular worker	2017	258	3	127	25.06	16.08	
	2018	260	10	134	25.35	14.64	
judging criteria	2017	259	7	126	21.47	14.47	
	2018	260	10	134	21.83	14.64	
participating worker	M	2017 severe	256	1	31	9.36	5.79
		2018 mild	129	1	32	2.79	3.57
		2017 severe	254	1	34	9.36	5.63
		2018 mild	134	1	40	2.99	4.54
	F	2017 severe	217	1	25	5.45	4.41
		2018 mild	89	0	51	2.73	5.56
		2017 severe	224	1	21	5.01	3.93
		2018 mild	91	0	50	2.59	5.35
nonparticipating worker	M	2017 severe	67	1	32	6.31	5.45
		2018 mild	25	0	6	1.56	1.16
		2017 severe	71	1	32	6.04	5.37
		2018 mild	26	0	6	1.54	1.14
	F	2017 severe	60	1	18	3.90	3.56
		2018 mild	14	1	7	2.29	1.98
		2017 severe	63	1	19	3.97	3.60
		2018 mild	14	1	6	1.71	1.38
non-disabled person	2017	159	0	23	4.72	4.00	
	2018	164	0	23	4.77	4.31	

\* M : man, F : Female, SD : Standard Deviation

#### 4.3 전체 근로자 임금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현황 중 전체 근로자와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의 2017년, 2018년 변화 추이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여 Table 1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첫째, 우선 지정품목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월평균급여가 2017년 790,977원에서 2018년 829,810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2017년 140.70시간에서 2018년 136.39시간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월평균 시급은 2017년 5,391원에서 2018년 6,003원으로 증가하였다. 최저임금적용 제외인원은 2017년 9.36명에서 2018년 9.46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둘째, 지정품목 직접생산에 비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017년보다(693,754원) 2018년(731,140원) 증가하였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2017년 139.36시간에서 2018년 141시간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월평균 시급은 2017년 4,306원에서 2018년 4,908원으로 증가하였다.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원은 2017년 7.98명에서 2018년 6.64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생산 참여근로자의 월평균 급여(2017, 2018)는 비참여 장애인근로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직접생산 참여 장애인근로자가 2018년 감소되었지만, 비참여 장애인근로자는 증가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원의 경우 직접생산 참여 장애인근로자가 비참여 장애인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2. Workers' wage status

Items		Frequency	MIN.	MAX.	Mean	SD		
participating worker	average monthly wage	2017	256	102,730	7,240,000	790,977.44	680,572.90	
		2018	259	79,100	8,100,000	829,810.86	669,114.20	
	Monthly average working hours	2017	253	5	898	140.70	70.25	
		2018	258	4	898	136.39	69.98	
	Monthly average hourly wage	2017	253	1000	12,471	5,391.52	2,367.62	
		2018	257	22	13,698	6,003.60	2,725.83	
	Not apply	2017	178	0	119	9.36	10.90	
		2018	175	0	60	9.46	7.88	
	nonparticipating worker	average monthly wage	2017	86	0	4,600,000	693,754.78	705,537.69
			2018	95	0	4,600,000	731,140.93	724,148.79
		Monthly average working hours	2017	84	0	209	139.36	64.19
			2018	92	0	209	141.00	59.33
Monthly average hourly wage		2017	83	0	22,009	4,306.96	3,413.44	
		2018	95	0	22,009	4,908.18	3,687.89	
Not apply		2017	70	0	49	7.98	8.75	
		2018	73	0	22	6.64	6.17	
non-disabled person		average monthly wage	2017	146	0	10,600,000	2,249,277.45	1,118,261.24
			2018	151	0	10,600,000	2,3387,04.66	1,119,632.43
		Monthly average working hours	2017	147	0	627	196.67	53.92
			2018	152	0	627	195.82	51.68
	Monthly average hourly wage	2017	142	0	23,468	11,174.67	3,982.40	
		2018	148	0	25,240	11,576.97	4,015.90	
	Not apply	2017	0	-	-	-	-	
		2018	0	-	-	-	-	

#### 4.4 생산시설 매출 현황

##### 4.4.1 지정 후 매출 변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시설 매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 극단치를 보이는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지정 이후 매출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매출액과 순이익을 지정받기 전년,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익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평균으로 분석).

분석결과, Table 13과 같이 순이익의 경우 지정받기 전년(37,484천 원)보다 지정받은 해(42,278천 원), 지정받은 익년(76,581천 원)에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지정받기 전보다 지정받은 후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3. Sales change after designation

Items	Frequency	MIN.	MAX.	Mean	SD	
Total sales	before	177	0	11,572,182	637,843.93	1,504,925.54
	assigned	201	0	205,147,000	2,645,393.96	16,457,365.28
	after	152	5,017	181,823,728	2,459,440.86	14,730,903.63
net profit	before	159	-166,755	963,181	37,484.59	116,561.11
	assigned	182	-698,825	1,368,600	42,278.29	187,617.36
	after	137	-400,600	1,113,403	76,581.96	165,821.00

##### 4.4.2 2017년 매출현황(매출순위와 매출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품목에서 2017년 매출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지정품목별로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품목 순위별로 매출액을 수의계약, 입찰, 기타, 합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여기서는 1순위 품목을 기준으로 분석함). 우선 전체 매출 합계를 보면 평균이 약 410억 원이며, 이 중 수의계약은 약 150억원, 입찰은 약 40억 원, 기타는 약 3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매출이 많지만, 지정품목에서 기타 매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매출순위와 매출액은 Table 14와 같다.

Table 14. Sales status in 2017 (Sales rank and sales)

Items	Frequency	MIN.	MAX.	Mean	SD	
private contract	1st	120	8,752	1,644,763.654	15,078,918.42	150,044,931.35
	2st	61	0	496,141,000	8,633,625.65	63,469,115.12

	3st	33	2,386	5,559,408	452,889.27	980,275.61	
	4st	12	4,550	1,151,700	317,716.50	415,429.10	
	5st	6	2,965	253,047	75,803.17	92,329.71	
	bidding	1st	50	5,200	177,150,000	4,078,163.86	24,989,002.51
		2st	16	0	743,824	216,234.06	207,576.01
3st		6	31,021	431,046	251,939.33	187,917.24	
4st		2	41,251	45,443	43,347.00	2,964.19	
5st		1	124,713	124,713	124,713.00	-	
Etc.	1st	122	500	4,020,000,000	37,098,476.91	365,807,713.90	
	2st	61	0	1,158,260	152,355.30	238,660.57	
	3st	36	350	833,127	81,917.11	147,657.33	
	4st	20	300	493,377	132,216.80	147,776.70	
	5st	13	2,380	321,914	57,010.23	105,568.63	
Total	1st	202	1,653	5,502,000,000	41,033,222.79	405,982,328.80	
	2st	109	0	496,141,000	5,276,712.17	47,560,507.76	
	3st	64	350	8,797,000	441,003.44	1,319,813.43	
	4st	30	4,061	1,151,700	218,662.10	314,975.61	
	5st	17	200	388,939	77,697.94	122,196.91	

4.4.3 2017년 매출현황(총매출액 외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품목에서 Table 15와 같이 2017년 매출현황을 각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총매출액은 약 440억 원이며 매출 총이익(손실)은 약 51억 원이다.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은 약 47억 원이며, 영업이익(손실)은 약 40억 원이다. 이 중에서 순이익(당기 순이익)은 약 20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총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약 4.8%인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5. Sales in 2017 (out of total sales)

Items	Frequency	MIN.	MAX.	Mean	SD
Gross sales	229	1,653	3,226,270,310	44,445,910.80	289,691,247.68
Cost of sales	207	0	2,817,856,010	40,319,482.57	270,138,494.43
Gross margin	204	-18,464,919	427,832,806	5,183,695.31	37,268,895.99
Sales and maintenance costs	192	0	296,812,310	4,746,016.62	28,531,589.80
Salary sum	199	0	525,768,439	8,458,320.75	50,542,469.43
Operating profit	176	-80,801,108	428,401,175	4,060,296.29	38,167,993.68
Non-operating revenue	169	0	428,000,063	3,533,314.36	33,887,589.39
Non-operating expenses	156	0	1,500,000	64,766.73	178,599.62
Profit Before Income Tax	152	-18,464,919	270,162,177	1,872,249.97	22,066,396.39
Corporate tax	108	0	3,365,345	41,249.01	328,733.49
net profit	173	-18,464,919	270,162,177	2,144,962.69	21,699,921.38

4.4.4 시설유형별 총매출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시설유형별 총매출액을 ANOVA를 통해 분석한 결과, Table 16과 같이 장애인 복지단체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 시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2.507, p=.060).

Table 16. Comparison of sales by facility type

Items	Frequency	Mean	SD.	F.
Sheltered workshop	129	11,927,915.57	103974989.41	2.507
working workshop	38	19,655,212.81	105137170.27	
Welfare organization	60	131,538,172.15	532382281.50	
Rehabilitation training Facilities	2	112,024.00	123083.24	
Total	229	44,445,910.80	289691247.68	

4.5 건의사항 및 의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발전과 우선구매제도를 위한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총 267개 사업장에서 12개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2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5개 사업장에서 753개 중복 응답을 하였으며, 비교적 많은 분포를 보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나타난 것이 Table 17과 같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첫째, 우선구매비율의 향상이었다. 뒤 이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가산점 확대, 판로 지원확대, 수의계약지원 확대 등으로 응답을 하였다.

Table 17. Essential support for priority purchase systems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tems	Number of redundant responses	Percentage	Case Percentage
Preliminary Production Facility Consulting	9	1.2	3.5
Provide public institution bidding information	22	2.9	8.6
Tax support for production facilities	66	8.8	25.9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urchase status of public	30	4.0	11.8
Provide pool of disabled workers	22	2.9	8.6
Consultation on employment of Employment	3	0.4	1.2



Priority purchase rate improvement	135	17.9	52.9
Incentives to Public Institutions	47	6.2	18.4
Additional points when purchasing public institutions	122	16.2	47.8
Providing information on production facilities to public institutions	47	6.2	18.4
Purchasing staff training	44	5.8	17.3
Expand sales support	94	12.5	36.9
Support for private contracts	89	11.8	34.9
Shopping mall activation support	11	1.5	4.3
Etc	12	1.6	4.7
Total	753	100.0	295.3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현재 생산시설로 지정된 544곳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지 배포를 하였으며, 이 중 267개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시설 일반현황에서 운영법인(47.0%), 사회복지법인(47.7%)이 많았으며, 주요 시설소유형태는 법인(43.8%), 월세(31.1%), 자치단체 소유(18.4%)로 나타났다. 주요 시설유형은 보호작업장(56.9%), 장애인복지단체(26.6%), 근로사업장(15%)이었다. 시설 소재지 지역은 서울(18.4%), 경기(25.1%)가 많았다. 지리적 특성에서는 대도시(47.6%), 중소도시(24.7%)가 많았으며 농어촌 및 산간지역(16.1%)도 나타났다. 주요 조사 품목은 식품(20.2%)과 인쇄/광고(16.1%), 시설/설비(15.4%)가 많았다. 박주영[12] 연구에서는 보호작업장 165개소(57.1%), 장애인복지단체 86개소(29.8%), 근로사업장 38개소(13.1%)였으며, 소재지는 경기(29.1%), 서울(18.0%), 부산(6.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절반 이상은 보호작업장이 차지하고 있어 이 우선구매제도도 관련하여 직업재활시설이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서울경기 지역과 대도시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생산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방 거주 장애인의 근로 기회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생산품목으로는 2015년 조사에서는 인쇄/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식품과 사무/문구가 그 뒤를 이었으나, 이번 조

사에서는 식품이 가장 많은 품목을 차지하고 있고, 인쇄/광고가 그 뒤를 이었다.

둘째, 지정품목별 선정이유를 분석한 결과 주로 6가지의 품목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판매 가능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등이 나타났다. 시설인증현황에서는 별도 인증 없음(32.3%) 이외에 (예비)사회적 기업(21.8%), ISO9001(15.1%), 그리고 ISO14001(9.8%) 등이 주요 인증형태로 나타났다. 선정이유로는 박주영 [12] 연구에서는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46.6%),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해서'(31.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5%)로 나타나 현 조사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수요에 대한 정확한 시장 조사 및 전문적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품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생산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상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와 직업재활사가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경영마인드에 기반 한 운영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

셋째,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에서는 총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중증장애인은 평균 16.51명이며, 경증장애인은 평균 2.49명이었다. 전체 근로자현황에서는 전반적으로 2017년보다 2018년에 상근근로자, 심사기준상 전체근로자,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비장애근로자, 심사기준상 전체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여성 장애인근로자가 감소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평균은 18.17명이며, 경증장애인은 3명이었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15년 더 많았으며, 2017년 감소하였다가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자 수의 차이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 급여지급에 대한 부담, 중증장애인 고용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을 저하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대부분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여성 장애인근로자는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생산성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체근로자 임금현황에서는 지정품목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월평균 급여가 2017년 790,977원에서 2018년 829,810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2017년 140.70시간에서

2018년 136.39시간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원은 2017년 9.36명에서 2018년 9.46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근로자 임금현황은 이전 연구에서는 생 산품목 생산 장애인근로자의 시급이 5,235원으로 타 품 목 생산 장애인근로자 시급 6,572원으로 타 품목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지정품목 직접생산에 참여 하는 장애인근로자 시급이 2017년 5,392원, 2018년 6,003원으로 비참여 장애인근로자 2017년 4,307원, 2018년 4,908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 산품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소득 면에서 약간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에서 는 그와 관련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원은 지정품목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2017 년 9.36명에서 2018년 9.46명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소득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생산시설 매출현황에서 지정 전후의 매출변화 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지정받기 전보다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전 연구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이 매출액과 순이익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제도를 활용한 생산시설로의 지정은 시설 운영에 중요 한 요건이 될 것이라 분석된다.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 재활시설 651개소 중 432개소(66.3%)가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있고<sup>1)</sup>, 33.6%는 지정되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개정 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좀 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박주영 [12] 연구와 금번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어 제도를 운영하고 업무 지원하는 주 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2곳의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 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겠다. 매해 국정 감사에서 우선구매율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우선구매제도의 악용사례

근절 등과 관련된 지적이 이루어졌으나,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이는 주무부처의 강력한 개선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제안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황 분석을 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이후 매출액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어 중증장애 인을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지 못한 시설들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생산품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2018년 현재 우선구매율이 1.07%<sup>2)</sup>로 1% 이상 나타나고 있어, 현행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율 1%를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법 제정 당시에는 장애인생산품 이 18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현재 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생산시설의 증가로 총 구매액 비율 상향이 가능한 정도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 졌다고 분석되며, 이에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더불어 1% 이상의 우선구매율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 기관 중 1%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493개(48.4%) 로, 우선구매율을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점 확대와 같은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직업재활시설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등 다 른 관련 업체와의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에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한 판로지원 및 수의계약 지원 확대, 생산시설의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 넷째, 중증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다른 구매제도와 맞물려 있어 사회적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중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업무수행기관이 생 산시설의 지원기관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과 기 능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구매촉진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생산시설 사업과 기술 개발 지원, 품질인증 및 마케팅 지원, 수의계약 대행, 우선구매 의무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민간기관에서는 수의계약 대행과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미국 AbilityOne 위 원회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대 통령 산하 상설기관으로 두어 좀 더 강력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1)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2) 2016년 1.13%, 2017년 1.01%, 2018년 1.07%로 3년 동안 의 구매율을 달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시설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입장에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이 직접적으로 지정을 주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 부담을 경감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장애인근로자 입장에서 경제적 문제를 가져온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 운영의 운영 지원과 맞물려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최저임금제 및 근로기준법 등 다른 정책과 맞물려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9). *2019 Disability Statistics at a glance*. Gyeonggi-do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 K. S. Park. (2008). The Study of Affirmative Action for Women, *Sogang Law Studies*, 10(1). 117-150.

[3] <http://www.abilityone.gov>

[4] <http://www.mohw.go.kr>

[5] W. H. Na. (2002). A Study on the Role of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for the Activation of the Priority Purchase System for the Disabled Produc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2(1). 63-75.

[6] W. H. Na, K. S. Park & D. J. Kim. (2003), A Study on the Marketing and Procurement System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3(2), 31-49.

[7] H. K. Lee. (2010), A study Procurement System of the Products by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9(2), 59-79.

[8] H. K. Lee, W. B. Lee, J. G. Gang, J. S. Lee & E. S. Choi. (2011), *Production facility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Productivity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 Seoul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9] J. N. Park, J. I. Kim, D. U. Gang, D. S. Sung, J. G. Kim & J. S. Mang. (2012).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Preferred Purchasing System for Serious Disabled Persons*. Seoul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10] W. H. Na. (2014). Performance Analysis and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the Preferential Procurement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n Affirmative Ac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8(3). 1-21.

- [11] W. W. Shin.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Disability -Focus on th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y-. *Korean Logistics Revie*. 26(4). 77-85.
- [12] J. Y. Park. (2017). A Status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everely Disabled.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7). 67-78.
- [13] W. H. Na, D. J. Kim, H. K. Lee, J. M. Seo & C. G. Song (2017).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for Severe Disabled Products Improvement research*. Seoul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14] D. J. Kim.(2018), A Study on Effectiveness in Preferential Procurement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Health & Welfare*, 20(1), 91-113.
- [15]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6), *Severely disabled Survey on production facilities*, Seoul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양 재 희(Jae-Hee Yang)

[정회원]



- 1993년 2월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문학사)
- 200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12월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서비스 및 정책 전공 수료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직업재활, 정책
- E-Mail : blue0093@naver.com